

“본래부처임을 믿고 지금 당장 부처행 하라”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11월 23일과 25일, 여섯 시간에 걸쳐 아단법석 법주사로 나선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 현실은 비연기적 사고인 실체론적 불교관과 이분법적 실천론인 비중도적 수행론에 빠져 매우 혼란스럽다"고 진단했다. 도법 스님은 "이론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으로 인해 수행자들의 회의와 갈등과 방향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불교관이 연기·중도적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본래부처와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바쳐 본래부처로 사는 것이 참 보살행이요 행역선 좌역선(行亦禪坐亦禪) 하는 참 정진"이라며, '본래 부처'임을 믿고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불교관 고통에 찬 삶을 살아야 하는 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류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화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그 해답으로 초기경전에서는 '유아독존', 대승경전에서는 '본래부처', 선가에선 '본래면목'이라고 했다.

잘 알다시피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본래부처론이다. 본래부처란 ① 천하에 제일 귀한 존재임 ② 가장 주체적인 존재임 ③ 제일 원만구족한 존재임 ④ 제일 고마운 존재임이다.

왜 그럴까? 지금 여기 생명(본래부처)의 존재인 나와 그대는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지금 여기 나와 그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매우 주체적인 존재이다. 온 우주의 그 무엇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데, 본래부처인 그대와 나는 자유자재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만구족한 존재이다. 온 우주의 낱알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여기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매 순간 귀하고 고맙고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어찌 날마다 뿌듯하지 않겠는가.

본래부처론으로 보면 수행해서 다시 부처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은 전도몽상이다. 절집에는 특별한 부처를 찾아 천하를 헤매고 다니는 무지한 중생을 비유해서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반 사회에도 정신 없는 사람을 비유해서 "업은 아기 3년 찾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 전해온다.

그럼 부처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했고 화엄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 했고, 선가에서는 '대무심(大無心)'이라고 했다. 본래부처인데 괜히 다시 부처를 구하고, 찾고, 이루려는 헛고생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본래부처로 살자. 본래부처답게 사는 것을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라 했고 선가에서는 '대무심행'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초기불교 수행론의 기본은 '팔정도'이다. 내용을 단순화시켜보면 법의 정신에 맞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것이다. 팔정도는 매우 평범하고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바로 당시의 삼업(三業: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율행)을 법과 교법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즉 지금 당장 당시 법에 맞게 마음을 쓰고, 법에 맞게 말을 하고, 법

로 현상이다. 바로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곳이고,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따라서 현상이 도량이요, 만나는 사람사람이 본래부처이므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만나는 그 사람을 본래부처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팔정도의 길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참선불교, 수행과 현실의 삶이 저절로 하나의 길로 통일된다.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다르다고 서로 우열을 다투어야 할 까닭이 어디에도 없다.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데 적절한 처방이라면 그 이름이 초기불교면 어떻고 대승불교면 어떤가. 참선불교라고 특별 대접하고 교학불교라고 푸대접하는 것이 과연 불교적이겠는가.

수행 따로 일상의 삶 따로라면 그것이 선방에 있

법에 맞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자 수행 따로 일상생활 따로라면 참된 불교 아니다

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팔정도요 초기불교의 기본수행이라는 뜻이다.

초기불교 시대에 사용해 온 '법'이라는 말과 본래부처, 팔정도 즉 본래부처와 삼업활동의 문제를 다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정견(正見)이다. 지금 직면한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인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보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사실은 정견 자체가 부처의 견해이다. 만일 정견 말고 부처의 견해가 따로 있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전도몽상의 견해일 뿐이다. 지금 여기 직면한 현장의 일상적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본래부처의 견해를 바르게 갖고 다듬고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이 정견 수행이요, 깨달음의 수행이다. 둘째는 정사유(正思惟)이다. 본래부처답게 사유 음미하는 것이 바로 정사유요, 그대로 부처의 사유이다. 셋째는 정어(正語)이다. 본래부처 답게 말하는 것, 즉 언어(如語: 한결같은 말) 실어(實語: 사실을 밝힌 말) 불어(不異語: 말 바꾸지 않음) 불광어(不狂語: 미친 말 하지 않음)자로 사는 것이 바로 정어인데, 이 역시 그대로 부처의 정어이다. 넷째는 정업(正業)이다. 본래부처 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업이요, 그대로 부처의 행위이다. 다섯째는 정명(正命)이다. 본래부처답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정명이요, 그대로 부처의 생활이다. 여섯째는 정정진(正精進)이다. 본래부처답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다. 그대로 부처의 정정진이다. 일곱째는 정념(正念)이다. 본래부처답게 깨어있음, 정신차림, 알아차림이 바로 정념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념이다. 여덟째는 정정(正定)이다. 본래부처 답게 언제 어디에서나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정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정이다.

본래부처가 있는 곳,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 바

든 법당에 있든, 산중에 있든 도심에 있든 참된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겸손하게 돌아볼 일이다.

질의응답

토론자(우바이) : 끝벌이 사라지면 (환경파괴의 결과로 인해) 인류가 망한다고 하셨다. 인류도 존속하려면 좋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자손을 나야야만 한다. 좋은 DNA를 가진 스님께서 환속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은 없는가.

도법 스님 : 물이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남자나 여자나, 출가자나 재가자나 세상이 돌아가려면 다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안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이 몇을 낳아 잘 기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서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수만명을 낳아 키우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다양성의 조화, 이것이 인드라망이다.

토론자(우바이) :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도법 스님 : 70년대 초에 선방에서 10여 년 정진하다가 이런 저런 회의가 들었다. 그러다 80년대 초에 <화엄경>을 만나 실상사에 화엄학회를 설치해 석달 동안 스님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이로구나, 생명의 활동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때부터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진보진영이 나아가 갈 방향을 잃고, 자본주의 역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해 생명자체가 위협한 상황



도법 스님.

에 처하자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장익순, 박경리, 김지하 선생 등의 말씀을 접하고 더욱 용기를 얻어 생명평화 활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불교와 사회적 대안을 동시에 실현하는, 종단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자리타의 수행이라 생각한다.

도법 스님 : 아단법석은 발로(發露)참회의 심정으로 마련된 자리인데, 실상사 아단법석 후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종단이나 총림, 선원 등에 대한 비판을 정직하게 할 수 없다면 불교 발전은 불가능하다. 우리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 참회하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이해해 달라. 다음 아단법석에서는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갈등을 치유하면서 구체적인 구제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은규 원불교 교무 :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기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교계의 어떤 공명을 본 것 같다.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런 법어의 마당이 열린다면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비구) : 수행자는 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한다. 본래부처로서 생활이 안될 때,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도법 스님 : 수행은 특수한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선방에서 연습만 하다가 본 게임에 응용을 못하면 되겠는가. 연습이 연습인 줄 모르고 거기에 매몰된다면 문제이다. 선방 수좌는 수좌다워야 한다. 수좌에게 자원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다. 진실 되게 수행하는 수좌와 열심히 포교하는 스님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수행에는 쉽고 편한 길이란 없다. 수행이 어렵더라도 맨날 안된다 하면 정말 안된다. 본래부처와 연기, 무아, 공에 대해 확신하고 팔정도에 따라 부처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손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둑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지대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 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를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시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관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주승과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가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 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앓고도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탑,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사점, 인쇄소, 문방구, 가운,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편의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산, 할인점, 공장,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범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 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일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